



이장춘 / 한국관광학회장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관광과 환경

1980년대초 한국에서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리산의 노고단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일었다. 당시 자연보존협회에서는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환경파괴의 주 원인이 된다고하여 맹렬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반면에 한국관광학회에서는 노고단까지의 케이블카 시설이 이용객의 편의는 물론 오히려 환경을 보존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0여년이상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지리산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관광과 환경이라는 두가지 현상이 상호 배타적인가 아니면 상호 보완적인가라는 것을 판단케 하는 잣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은 결국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대신 노고단에 이르는 길을 포장하여 놓은 결과, 피서철은 물론이고 봄맞이철 또는 단풍계절시에 차량 홍수로

지리산의 아름다운 계곡이 병들어 가는 작금의 현실을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

관광 환경은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제 환경으로서 정치적환경, 경제적환경, 사회적환경, 문화적환경, 교육적환경, 기술적환경 및 생태적환경을 모두 포함하여 일컫는 개념으로서 이러한 제 관광 환경이 관광 현상의 변화에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한국의 관광발전 과정에서 관광 현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외부환경 요인은 정치적 환경 요인으로 귀결된다. 1974년 문세광 사건과 1979년 10.26사태는 정치적인 환경이 관광현상을 매우 위축시킨 결과를 초래 하였다는 사실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관광의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삼자의 입장에서 서서 보면 관광개발을 큰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착각하고 있다. 환언하면 관광 개발로 인한 자연파괴를 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관광 개발이 자연환

경 파괴를 가져온 사례를 역사적으로 많이 보아온 것만은 사실이다. 특히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가가 관광 달러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인식한 나머지 관광 개발이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에 미칠 영향을 전혀 고려치 않고 관광개발을 함으로서 자연을 파괴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관광개발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몇 가지 요인을 살펴 보기로 하자.

첫째, 관광개발이 가져올 환경 파괴 요소를 사전에 고려하지 않고 개발에 임하는 경우이다. 개발계획에서 반드시 존중 되어야 할 개발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가 도외시된 경우이다.

둘째, 관광개발에 대한 의욕이 넘친 나머지 개발을 해선 안될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나타나는 환경파괴의 사례이다.

셋째, 관광 개발시 개발지역의 적정수용 능력을 고려한 개발 계획이 수립 되어야 하나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고 개발된 경우이다. 이 경우 과다 이용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요소가 될수 있다.

넷째, 관광 개발 계획의 전 과정이 공개되지 아니하고 밀실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며 철저하게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배제된 상황에서 하향식(Top-down) 관광개발이 이루어질때 환경파괴의 주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관광개발이 환경을 파괴해온 사례를 들 수 있는 반면에 오히려 관광 개발이 황폐해 가는 환경을 되살리

고 환경을 보존시킨 사례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발견될 수 있다.

1960년대초 프랑스 정부는 국민들의 지나친 해외여행을 억제하고 관광 달러의 외국 유출을 막으며 외국으로 부터 관광객을 불러 들일 수 있는 방안 즉, 세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슈퍼 프로젝트를 시작 하였다. 이것이 유명한 랑독-루시용 관광 개발 계획이다. 입지적인 조건으로 볼때 랑독지역과 루시용지역은 쓸모없는 해안 늪 지대이며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최악의 불모지로 버려진 해안이었다. 이 지역을 지역 주민의 참여하에 환경을 살리면서 20여년 동안 개발 계획을 한 결과 오늘날 프랑스인의 하계 바캉스 목적으로 가장 선호되고 있으며 인류가 자유시간을 가장 바람직스럽게 보낼 수 있는 리조트 지대를 창출시킨 사례에서 많은 시사점을 본 받을 수 있다.

또한 스위스의 알프스산을 개발하는데 있어 샤모니, 융 플라우, 필라투스과 같은 고봉에 케이블카를 설치한 것도 자연파괴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관광 개발이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더불어 상호 보완성을 지니는 또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측면이 강조 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무서운 것은 정책 결정자가 환경의 속성이나 관광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급하

□□
대전 엑스포에서 우리는 가장 소극적인 환경보호 방법중의 하나인 쓰레기 문제를 엑스포가 끝난 뒤 제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하면서 관광과 환경을 대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

게 관광 산업을 육성 한다고 할 때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의 파괴 및 종속현상이 더욱 더 걱정스러운 현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정책 결정자와 일반국민, 관광 기업인 및 관광객이 자연과 관광과 환경을 대하는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해야만 관광과 환경과의 상호 보완성의 빛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 매년 피서철이 지나고나면 관광 개발로 인한 파괴보다 어찌면 더욱더 심각할 수도 있는 쓰레기 공해 문제가 더 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며칠후에 개최될 지구촌 과학 축제인 인류의 미래를 보여줄 대전 엑스포에서 우리는 가장 소극적인 환경보호 방법중의 하나인 쓰레기 문제를 엑스포가 끝난 뒤 제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하면서 관광과 환경을 대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